

SK, 기후변화 재해구호 자원봉사

SK그룹은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6월26일 서울 등촌동 KBS 88체육관에서 <SK긴급구호 자원봉사단 발대식>을 열었다.



발대식에는 SK자원봉사단 단장인 SK C&C 김신배 부회장과 13개 SK 관계사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. 또 공동주관 단체인 월드비전 박종삼 회장 및 한미야 긴급구호팀장,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윤병철 회장 등도 참석했다.

SK 자원봉사단원들은 수재민들에게 필요한 티셔츠, 세탁용품, 비옷, 수건 등 19개 생필품으로 구성된 2000세트의 긴급구호 키트를 현장에서 제작했다.

SK는 앞으로 재난 발생시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구호 키트와 생수, 가스 연료 등 식품류, 조리기구 등을 함께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.

SK 자원봉사단은 2002년 국내에서 가장 극심한 수해를 입은 경상남도 김해지역 이재민들에게 1000여개의 긴급구호 물자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긴급구호 키트를 제작해 수재민들에게 제공해왔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09/06/26>